



## 동양의 나폴리

일본 규슈지방 최남단에 위치한 가고시마는 자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관광지다. 아름다운 바다를 벗한 풍경이 이탈리아 나폴리와 비슷해 '동양의 나폴리'로 불리는 이곳에는 지금도 7개의 화산들이 살아 있어 풍부한 온천을 만들어 낸다.

후지산이 일본을 대표한다면 가고시마를 상징하는 것은 긴코만 한가운데 솟아 있는 활화산 사쿠라지마(櫻島, 1,117m)다. 일본의 화산 86곳 중 활동이 가장 활발한 사쿠라지마는 외곽 둘레만 52km에 이르고, 전체의 85%가 기리시마 야쿠 국립공원에 속해 있을 정도로 풍광이 빼어나다. 든든한 아버지 같은 존재인 사쿠라지마를 현지인들은 화산의 색깔이 일곱 가지라고 자랑하지만,

해가 뜨고 지기까지의 모습만 봐도 수십 가지 색깔을 가진 듯하다. 가고시마에는 온천만 90개가 있어 일본에서도 유명한 온천지대로 손꼽힌다. 가고시마 온천의 백미는 단연 기리시마(霧島, 안개섬)의 계곡온천이다. 기리시마산 남서 사면의 중간쯤에는 묘반, 유노타니, 신유 등의 온천마을이 있고, 숙박은 물론 당일 입욕도 할 수 있는 온천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다.

하늘로 쪽쪽 뻗어 오른 울창한 삼나무 숲에서 화산섬 특유의 검붉고 푸석푸석한 흙을 밟으며 산책로를 오르다 보면 계곡물에 서린 뿌연 안개가 눈길을 끈다. 펄펄 끓는 유황 온천이 계곡을 흐르며 만들어진 수증기로 기리시마에서는 항상 꿈속 같은 안개숲을 만





# 일본 가고시마

날 수 있다. 또한 기리시마에는 온천뿐만 아니라 이부스키(指宿) 시가 자랑하는 세계 유일의 모래찜질 온천도 인기를 끌고 있다. '파기만 하면 온천'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바닷가 지열로 인해 모래는 44-55도의 온도를 유지한다. 온돌방에서 몸을 지지듯 기분 좋은 뜨끈함을 즐기며 모래찜질을 하면 여행의 피로는 어느덧 날아가 버린다.

가고시마의 밤을 좀 더 즐기고 싶다면 베이 크루즈를 추천한다. 가고시마 남항에서 시작해 긴코만을 순회하는 크루즈를 타고 사쿠라지마 화산의 위용과 긴코만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다. 선상 위에서 볼 수 있는 가고시마항에서의 화려한 불꽃놀이

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가고시마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는 음식이다. 작은 1인 식 화로에 구워먹는 흑돼지 삼겹살을 비롯해 야채와 어우러진 흑소 샤브샤브 등이 별미다. 그리고 가고시마현 내 가이몬 도센코 협곡에서 맛볼 수 있는 소멘나가시도 꼭 먹어봐야 한다. 자연용출수를 사용한 차가운 소면을 맛본다면 가고시마에 온 본전은 뽑은 셈이다.

자연의 숨결을 담고 있는 가고시마. 거기에 풍부한 먹을거리까지 있으니 온천욕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겨울 여행 장소로 손색이 없을 듯하다. ☺

